

#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여전...추격전에 경찰관까지 음주

### 만취 60대 10km 역주행...시민 신고로 추격전까지 경찰, 술취해 차 운전...음주 사고 실형으로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10km를 역주행하고, 시민의 신고로 뺑소니범이 검거되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신고대기 중 잠을 자는 일까지 벌어졌다.

5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께 해남군 문래면의 한 장례식장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모(68)씨가 마주오던

유모(36)씨의 승용차 등 3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가 나기 전 문래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김씨는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시작해 10km를 달려 장례식장 앞에서 마주오던 차들을 들

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경찰은 20여분만에 김씨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으며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부산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2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0시 54분께 광안대교 일대에서 “흰색 투싼 차량이 비틀거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약 10km 떨어진 부산진구 문전교차로 일대에서 신고대기 중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도주로를

가로막았다.

운전자 A(28)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넘는 0.12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찰과 상관없이 10km를 추적해 검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대기 중에 잡히든 사건도 있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

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한 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김 경위는 신고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됐다.

대전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점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사고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예년보다 빠른 졸업...타임캡슐 등 이색 풍경 초·중·고 대부분 1월 졸업식 개최...“흥겨운 분위기로 아쉬움 달래”

광주 초·중·고교 졸업 시즌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시작했다.

일선 학교들은 올해도 공연·편지·타임캡슐 등을 통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낸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154개 초등학교 가운데 사립 3곳 등 일부를 빼고는 이달 초부터 오는 11일까지 모두 졸업식을 마칠 예정이다.

중·고교에서도 1월 초 졸업식을 앞당긴 학교들이 부쩍 늘었다.

통상 12월 말에 겨울방학에 들어갔던 기존 학사 일정과 비교해 5일 안팎씩 방학 시작을 늦춘 영향이다.

광주 대부분 초등학교와 일부 중·고교는 이듬해 2월 개학했다가 며칠 더 수업 후 졸업식을 하고 다시 봄방학에 들어가는 대신 방학을 늦게 시작해 3월 초까지 이어서 쉬기로 했다.

방학 날 졸업식을 하면서 졸업식도 졸업식에 맞춰 한 달가량 당겨졌다.

지난 4일 조대여중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운초 졸업생들은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교장에게 미리 만든 타임 캡슐을 전달했다.

송우초에서는 오는 7일 졸업식에서 레드카펫과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로 했다.

신가중에서는 졸업생의 학교생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상영한다.

전대사대부고는 학교생활 영상 상영과 함께 타임캡슐 제작, 전입 교사의 공연 등을 졸업식에 결집한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전남여고 방송통신고 졸업식에서는 70대 노인 등 만학도들의 사연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기쁨과 교사·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며 “흥겨운 분위기로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것도 요즘 졸업식의 풍속”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지난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오늘 재판 불출석...“독감·고열 탓”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의 법을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드셔서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감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씨의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피낸 회고록에서 조

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두 차례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전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후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지적장애인 상습 가혹행위 20대 주범 구속

### 1명은 기각...“진술 엇갈리고, 심문 태도 고역”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2명 중 1명에겐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이기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다투어 간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특수상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22-남)씨와 염모(20-남)씨 중 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학교 선배 사이인 정씨와 염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북구 일대에서 약 한 달여 간 A(23-남)씨와 B(21-남)씨를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판사는 주범인 정씨에 대해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그러나 범행을 조력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염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한 혐의 내용,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족, 주거 관계, 수사·심문 과정의 태도 등을 비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의자 6명 중 정씨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 등은 지적장애 5급인 피해자 A씨를 한 달여 간 담뱃물로 지지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 행복도시\_광양